

가금위생



오 경 록

남덕에스피에프 대표/이학박사

1. 유럽연합에서 AI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

유럽연합의 각 가맹국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식품 연쇄 및 가축위생 상실 위원회는 8월 25일 아시아지역과 러시아(시베리아)지역에서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영향과 동 질병에 대한 경계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철새 비행경로 등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 철새가 아시아지역 등에서 유럽에 H5N1형의 AI(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할 가능성은 있으나 중요성은 낮다고 하고 있다. 한편 대책으로서는 전 가맹국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2005년/2006년도의 감시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동 질병의 침입위험이 있는 철새 비행경로지역에서의 철새 샘플수를 늘리는 것을 권장하였다.

현재 전 가맹국은 유럽 연합 규정을 기본으로 해서 AI가 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가금군을 살처분 하도록 되어있다. 동 위원회는 어떠한 발생정도에서도 확산을 제한하는 열쇠는 조기발견과 신속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에 관해 유럽위원회는 유럽 연합규정의 개정을 제

안하고 현재 각 가맹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아시아지역, 러시아지역에서의 AI 발생에 일부 가맹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특별한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실외에서의 가금의 사육 금지조치는 현시점에서의 질병 침입 위험을 막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농장수준에서 실시하는 차단방역 대책에 대해서 전 가맹국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수준에서 실시하는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한 대책의 강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험평가에 대해서는 철새 비행경로나 지역 내 철새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또한 위험상황에 따라서는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욱 동 상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가맹국에 권장하였다. ① 농가에서 실시하는 차단방역 대책의 개선의 장려와 AI 조기발견을 유도하기 위한 의식 프로그램개발, 이를테면 AI에 관한 전단지나 출판물의 배포를 통해서 일반적인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에 관해 상정하

고 있다. ② 현재 유럽연합의 규정을 기본으로 발생예방에 관하여 신속한 재검토와 필요하다면 개정, 이에 관해서는 감염위험이 있는 가금 산업 근로자의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③ 상업용의 선적출하물이나 여행자의 수하물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조류(가금 이외의 관상용 조류를 포함), 그리고 이들 제품의 유입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제3국과의 국경에서의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유럽연합의 규제에 따라 조건이 만족한 것만을 수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 상설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 신뢰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NK, 2005, 11)

2. 사료단백질원료와 항균제가 육계생산성과 스트레스 응답에 미치는 영향

야마나시현 축산시험장에서는 사료 중 단백질원의 차이와 항균제의 첨가유무가 육계(♀)의 생산성과 스트레스 응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시험은 사료중의 단백질원으로 동물성 원료(어분)을 5% 배합한 사료(AP)와 단백질원으로 대두박을 사용하여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사료(PP)의 2종류 사료를 만들고 여기에 항균제로 라사로시드나트리움 제제(LS)의 첨가 유무로 이루어진 4종의 사료 급이 시험구를 만들었다.

시험기간은 0~8주령까지로 3주령까지는 전기사료를 급이 하고 그 이후 8주령까지는 후기사료를 급이 하였다. 그 결과 0~3주령의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은 항균제(LS)첨가의 영향은

없고 어분첨가사료급이 육계에서 유의적인 높은 수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8주령시의 체중은 사료단백질원의 차이에 관계없이 항균제 첨가에 따라 유의적인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사료섭취량에는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어느 기간에나 사료 요구율에 사료 단백질원과 항균제 첨가 유무의 영향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육율에서는 사료단백질원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항균제 첨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슴근육의 색조는 시험 처리간에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복강 내 지방의 색조는 항균제 첨가에 따라 밝기와 백색도가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동물단백질원의 급이는 복강 내 지방의 황색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8주령시의 혈중 위호산구와 림프구의 비율은 동물단백질과 항균제첨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식물단백질을 이용한 경우에는 항균제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혈장 TBA수치는 식물 단백질원에 따라 그리고 항균제 첨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동물 단백질원 첨가사료의 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은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상의 시험결과로서 초생추시기(0~3주령시)의 발육 체중은 동물단백질의 이용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이후의 발육과 생산성에는 사료 단백질원의 영향보다도 항균제 첨가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트레스 방지와 산화 방지의 관점에서 보면 항균제의 작용은 동물 단백질원을 이용한 사료를 급이 한 육계에서 보다 크게 보였다고 하였다. (NK, 2005, 10)